

그림 : 고평년 안나(부산가톨릭미술협회)

연중 제16주일

제 1 독서 예레미야서 23,1~6

화답송 시편 23(22),1~3 7.3L 4~4.5.6 (© 1)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으라.



(후렴)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으라.

1.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으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네. ◎
2.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
3.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

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

4.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제 2 독서 에페소서 2,13~18

복음환호송 요한 10,27 참조

◎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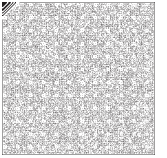
복음 마르코 6,30~34

영성체송 시편 111(110),4~5

당신 기적들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로우시다. 당신 경외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예수님이 머무시는 외딴곳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너희는 따로 외딴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마르 6.31)하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외딴곳에 머물러 보면 앞서 살아온 날들이 조각난 하얀 먼지처럼 떠오를 것입니다. 번잡한 곳에서는 사람들의 속사정을 맑고 환하게 보고 듣기가 쉽지 않은 법입니다.

쉰다는 것은 밖으로 나가기만 하는 시선과 말들을 멈추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멈추는 가운데 이미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무엇을 찾는지, 또 누구를 기다리는지를 선명하게 알게 해 주는데,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 파견되어 그분의 심부름을 하는 동안 가르치고 돌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의 신원도 알게 해 주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그들은 누구일까요? 자기보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 덜떨어진 사람? 아닐 것입니다. ‘이웃을 나 자신과 구

별하며 살았던 사람’일 것입니다. 이웃과 구별하면서 비참과 교만을 맛보고, 내적인 고독이 깊어 시린데도 그 이유를 몰라 힘들게 지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하느님의 현존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시는 가없는 사람이며, 군중이고, 목자 없는 양들(34절)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외딴곳이 쉼을 통해 이 같은 답을 찾는 장소가 되면, 예수님께서 군중을 두고 떠나시면서도 그 행보를 군중들의 시야에 드러내 좋으시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자기 내면의 답을 찾는 일은 제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군중들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군중들도 그 ‘외딴곳’으로 초대하십니다. 떠난 적이 없는 목자를 떠나버렸다고 여기는 군중에게는 ‘소리 없는 마음의 말’로써,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소리는 있되

마음을 열어야만 들을 수 있는 마음’으로 그들을 외딴곳으로 부르셨던 겁니다.

그렇게 누구라도 자기에게 하느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제자와 군중 역시 구별할 필요가 없겠지만 누구는 가르치고, 또 누구는 가르침을 받고, 언젠는 노동하고, 또 언젠는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거기 하느님을 만나는 외딴곳이며, 은총의 자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외딴곳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그곳은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늘 살아가는 곳, 서투고 불편하고 하느님이 안 계실 것 같은 이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계시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박갑조

세례자 요한 신부
맑은하늘 피정의 집 관장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씀이 들려온다.

행복은 농아주는 것이다.
자유로와진 행복은
모든 존재들에 거할 것이다.



글. 강은교 글라라 시인(송도성당)
그림. 최창임 프란치스카 화가(성가정성당)

cpbc 부산가톨릭평화방송

부산 FM 울산 FM 녹산 FM
101.1 MHz 94.3 MHz 101.5 MHz

오늘의 강론 월~토 06:50

7.23(월)~24(화)
박갑조 신부(맑은하늘 피정의 집 관장)
7.25(수)~28(토)
오정환 신부(무거성당 보좌)

사랑이 있는 세상

월~목 12:15~14:00

진행 : 우지민 아나운서

7.24(화) 함께하는 여정
출연 : 부산성모병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7.25(수) 본당 리포터
출연 : 구성은 글라라(남천성당)

하느님과 하나되는 하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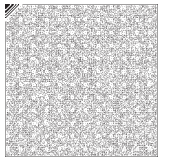
7.27(금) 12:15~14:00

진행 : 이재석 신부(밀양성당 주임)

우리 찬양사도 출연 : 김상균 라우렌시오



귀 기울이는 교회



세상에는 수많은 죽음이 있다. 삶과 죽음이 하나라고 하지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반응, 방식, 태도는 다 다르다. 나와 얼마나 가까운 사람이었냐에 따라 슬픔의 깊이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는 이의 죽음 앞에서도 그가 생전에 어떤 사람이었던 애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쌍용자동차에서 정리하고 된 노동자가 죽었다. 고인은 해고 후 복직이나 취업이 되지 않아 신용불량자가 됐고, 공사장과 운전일 등을 하며 생계를 이어오다 지난달 평택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쌍용차 정리하고 사태와 관련해 목숨을 잃은 30번째 사망자다. 노조와 대책위원회가 대문 앞에 분향소를 설치했지만 보수단체 회원들은 조롱과 폭언, 의자 등을 던지면서 조문을 방해했다는 기사를 봤다. 세월호 유족들이 단식하는 앞에서 폭식 이벤트를 벌

인 사람들이 오버랩되었다. 긴 탄식과 함께 절로 기도가 나왔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었을까?

노동사목은 지난 해부터 준비해오던 노동자와 사회활동가 심리치유 모임을 올해부터 진행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며 1년 여의 시간을 고공농성했던 노동자, KTX 여승무원들처럼 장기 투쟁 사업장의 노동자, 노조조차 만들 수 없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 위험한 일은 다 맡고 있지만 언제 계약종료 될지 모르는 파견노동자, 온갖 곳은일은 다하며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현장 실습생이라는 이름의 청년 노동자,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알바노동자 등 먹고 살기 위해 힘겹게 일하는 노동자들이 겪는 아픔과 슬픔 그리고 삶의 벼랑 끝에서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처지를 살피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리가 되고자 한다.

노동사목이 얼마 후면 교구에서 마련해 준 곳으로 이사를 간다. 우연찮게도 30여 년 전 가톨릭노동상담소가 첫 문을 열었던 지역이다. 고맙게도 사상성당과 담을 같이 쓰는 이웃이 된다. 비록 오래되고 낡은 건물이지만 신부님과 많은 노동자들이 몇 달 동안 땀 흘리며 노동자들을 위한 소박한 공간으로 만들었다. 돈이 우상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노동자들을 위한 사목이란 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생각해본 적이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봉사(serve)하고, 동반(accompany)하며, 변호(advocate)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 믿는다. 이 또한 대부분 자신의 노동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평신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와 힘을 모아줄 때 '노동사목'의 역할은 보다 풍성해질 수 있을 것이다.

■ 변미정 모니카

초량성당 • 노동사목 free6403@hanmail.net

환경과 생명 **세상은 이미 넘쳐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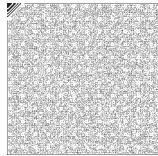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당신의 교황권고 『복음의 기쁨』 54항에서 "자유 시장으로 부추겨진 경제 성장이 세상을 더욱 정의롭고 평등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는 '낙수 효과'(trickle-down) 이론'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참으로 대기업과 부유층 소득이 늘어나면 투자가 촉진돼 경기가 부양되며, 이로 말미암아 저소득층에도 혜택이 돌아가 소득 양극화가 해소된다는 낙수효과 이론은 역사에서 한 번도 그 이론에 걸맞는 결과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삶에는 먹고사는 문제로 고된 시간을 견뎌내야했던 흔적이 곳곳에 짙게 배어 있습니다. 샷갓으로 덮으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눈을 일컫는 괴산의 샷갓논, 흙이 부족한 섬에서 흙의 유실을 막기 위해 논바닥에 돌로 구들을 놓은 청산도의 구들장논, 쟁기질하던 소가 바다로 떨어진다는 남해 바닷가 절벽논 등이 바로 그 생생

한 증거입니다. 이 논들은 팍팍한 삶을 이겨내기 위해 온몸으로 노동하며 일구어낸 생명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이토록 눈물 나는 고난의 시간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느님은 당신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요한 10,10)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아직도 가난에 허덕이며 생명의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 인간이 지닌 탐욕이 빚어낸 결과라고 보아야합니다.

인도의 성자라 일컬어지는 마하트마 간디는 "세상이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의 욕심을 충족시킬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생명이 생명일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이유는 어디에도 갇히지 않고, 나의 경계를 넘어 밖으로 끊임없이 흘러넘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생명의 풍요로운 잔치가 지금 여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흐드러지게 벌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 우리농 본부(051-464-8495) woori-pusan@hanmail.net



지난 4월 핫이슈는 ‘남북정상회담’이었습니다. 두 정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남북 관계의 획기적 개선을 약속하였습니다.

2008년 베드로 씨(45세)는 탈북한 지 5년 만에 한국에 입국하였고, 1년 뒤에는 결혼도 하고 중국에서 다친 후 치료를 받지 못한 고관절과 허리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씨는 병상에서 ‘남북정상회담’을 보며 밀려오는 감동과 동시에 그동안 억눌려 왔던 분노가 솟아오르면서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국으로 탈북했지만 공간의 감시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은 공사장의 일용직뿐이었습니다. 탈북민이란 이유로 임금도 적게 받고 장시간의 중노동에 시달리던 중 포크레인에 깔려 고관절과 허리를 크게 다쳤지만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극심한 고통을 참으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유를 찾아 한국으로 온 후에도 베드로 씨의 삶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에서 준 정착금은 수월비로 전부 사용하였고 북한에서의 고된 삶, 중국에서의 오랜 중노동으로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해야만 했습니다.

수많은 곳에 이력서를 제출했지만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남들이 꺼리는 일밖에 없었고 결국 아픈 몸을 이끌고 공사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베드로 씨는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검사결과 간경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규칙적인 식사를 제대로 못한 채로 통증을 참기 위해 약만 복용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면 간경변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담당의를 말을 듣고 베드로 씨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가족의 생계 걱정과 매일 늘어나는 병원비, 게다가 생명을 유지하려면 ‘간이식’을 받아야 한다는 담당의 말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현재 베드로 씨의 배우자도 탈북하다 허리를 다쳐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며 자녀들도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비 지출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 가정이 우리나라에서 다시금 자유와 희망을 가지고 주님께 의탁하며 성가정을 이루고 평범한 일상에서 소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기도와 함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 사회사목국(051-516-0815)



도움 주실 분

신협 131-016-582122

부산은행 101-2017-0218-01

예금주 : 천주교부산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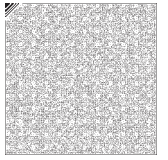
인간들이 자유를 잘못 사용할 때마다 하느님이 바로잡아 주면, 죄를 짓지 않을 테고 죄로 인한 고통도 당하지 않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나요?

공감합니다. 만약 우리가 상대를 공격하려 할 때, 그 마음을 꽃잎처럼 부드럽게 만들어주거나 남을 비방하고 욕하려는 생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면 세상의 다툼은 엄청 줄어들 테지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조화로운 세상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라며 하느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나의 행위는 무의미합니다. 죄를 짓지는 않겠지만 전혀 기쁨도 행복도 느끼지 못할 테니까요. 때문에 자유는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자유로 인해서 당신의 뜻이 아닌 죄로 쓸릴 위

험소지가 많음에도 허락하시는 하느님 사랑의 배려입니다. 성경은 하느님께서 자유를 선물하신 이유를 뚜렷이 밝히는데요. “여러분이 선을 행하여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기에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행동”할 것을 권하고 “자유를 악행의 구실”로 삼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1베드 2,15~16 참조) 때문에 주님의 멋진 선물인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그러기에 자유의지에 따른 고통을 배제하려는 마음이 자칫 옳은 삶을 배제시키는 행위로 치달을 위험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장재봉 신부(선교사목국장) gajbong@hanmail.net

농민주일 행사



우리 교회는 해마다 7월 셋째 주일을 농민 주일로 지내고 있다. 이날 교회는 신자들에게 농민들의 노력과 수고를 기억하면서 도시와 농촌이 한마음으로 하느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살도록 권고하고 있다. 우리 교구 많은 본당에서도 지난 7월 15일(일) 제23회 농민 주일을 맞아, 특강 및 동영상 상영, 우리농산물 판매 및 나눔, 떡메치기 체험, 쌀

지킴이 회원 모집 등 다채로운 행사를 실시했다. 장유대청성당에서 미사를 주례한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장 김인한 신부는 강론 중에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단순히 교회의 장벽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자리와 우리 삶의 영역 안까지 성화시키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을 삶과 일치시키는 것이다.”고 말했다.



장유대청



무거



모리성요한



임호



장유



수영



개금



안락직판장



주례

믿음의 해를 지내는 우리들 ⑨



성안성당, 소공동체 초대 행사

성안성당(주임 : 권동성 신부, 회장 : 조운철 하상바오로)은 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매달 셋째 주일마다 반 전체를 초대하여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월 15일(일) 2구역 2반 공동체를 초대하여, 고기 파티, 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토의 등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지난 7

월 1일(일)부터 다대성당(주임 : 김남수 신부, 박진성 신부, 회장 : 이형귀 프란치스코)은 레지오 단원들을 주축으로 냉담 교우 믿음회복을 위한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운동은 본당 신자 가정의 냉담 현황을 파악하여, 단원들이 직접 각 가정을 방문하여 회두에 힘쓰고 있다.



다대성당, 가정방문



수영성당, 제단체 단원 피정
7월 14일(토) 정하상바오로영성관



개금성당, 레지오 간부 교육
7월 8일(일) 본당

가톨릭 유아생태교사 교육



지난 7월 7일(토) 가톨릭센터에서 교구 산하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들을 대상으로 생태교육을 실시했다. '즐거운 불편, 지구살리기'라는 주제로 열린 교육은 생명환경의 관한 특강, 천연 재료 수분 크림 만들기 체험 등으로 진행되었다. 앞으로 유아생태교사들에게 자연과 함께하는 캠프, 농촌 체험 등 자연 환경과 더불어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 구

2020학년도 신학대학 지원자 모집 및 피정
· 8.18(토) 14:00~19(일) 13:00 · 부산 은혜의 집
대상 : 사제성소에 관심 있는 현재 고2, 일반
회비 : 3만 5천원 / 마감 : 8.7(화)
문의 : 629-8760 ※ 2020학년도 신학대학에 지원할 지망자는 반드시 이 피정에 참석해야 합니다.

남산성당, 본당 설립 30주년 기념행사



남산성당(주임 : 김정호 신부, 회장 : 이정열 요셉)은 지난 7월 15일(일) 본당 설립 30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를 열었다. 이날 본당 출신 사제 석관홍 신부(옥동성당 주임)를 초

대하여 감사미사를 함께 봉헌하고, 본당 주보성인 이콘 축복식, '본당 지킴이' 시상식, 축하 공연(로사리오 성가대, 자전 거 탄 풍경) 등이 있었다. 또한 30주년 기념사업 일환으로 역대 사목회장 사진전, 본당 신자 작품 전시회(유화, 수채화, 동양화, 서예, 퀼트 등), 외곽교우 교리반 운영, 성지 순례 등 다양한 기념행사가 있었다.

기관·제 단체·위원회

교구평협 시복시성기원 도보성지순례

· 7.28(토) 09:00(11:00 미사) / 개인 도시락 지참
· 삼랑진역 출발, 김범우모 순례
기차 : 부산역 07:50 출발, 구포 08:04
개인 도시락 지참 / 문의 : 622-5588(평협)

군중후원회 부산 미사

· 7.26(목) 14:00 · 가톨릭센터 경당
주례 : 이상울 신부(19전비단 은성대성당)
문의 : 751-3610

평신도선교사회 예비신자 우편 통신교리

대상 : 본당 교리반 참석이 힘든 예비신자
수강신청 : 본당 사무실, 가톨릭센터 홈페이지
(www.bccenter.or.kr), 신학원 카페(cafe.daum.net/catholic-sinhak) / 문의 : 462-0334
(월~금, 14:00~17:00), logos1981@daum.net

부산 미바회 후원회 미사

· 7.27(금) 10:00 / 세계유지선교회차량지원
· 문현성당 / 문의 : 010-9312-4228(회장)

가톨릭서예인회 7월 정기모임

· 7.30(일) 18:30 · 남대문(서면 영광도서 앞)
문의 : 010-8521-9522(회장) ※ 회원 수시 모집

복스양상블(남성중창단) 단원 모집

· 8.5(일) 15:00 · 남천동 연습실
대상 : 성음악에 관심있는 신자 및 예비신자 형제님
가톨릭성가 또는 자유곡 1곡 준비(전공, 나이 제한 없음) / 문의 : 010-3576-9495(단장)

가톨릭심리상담소 행복나눔의전화 : 463-7866

상담 : 월~금 10:00~16:30(중구 대청동)
내방상담 : 신자, 비신자 및 타종교인(전화 예약)
청소년 진로 및 심리상담 : 토요일 10:00~16:30
상담사 : 조옥진 신부(상담심리학박사) 및 전문상담사

선종사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016. 7. 25. 방주섭(스테파노) 신부님

혼인미사 예약 및 예식 안내

혼인미사 예약 접수 : 9.2(일) 09시부터
혼인미사 예식 시작 : 9.8(토) 11시부터

토, 일, 공휴일 : 11시, 13시, 15시, 17시



부산가정성당
Matrimonium · AMOR · Familia

읽고·보고·듣고

수상한 흥신소 1탄

■ 공연 9월 16일(일)까지
■ 장소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2관
■ 시간 화-금 20:00, 토 16:00, 19:00, 일 15:30, 18:30

불편한 타이밍

■ 공연 10월 28일(일)까지
■ 장소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2관
■ 시간 화-금 17:00, 19:30, 토 15:00, 17:30, 20:00, 일·공휴일 14:30, 17:00, 19:30

■ 관람료 3만원 → 평일 1만 4천원, 주말 1만 5천원 ■ 문의 1588-2757 ※ 월요일 공연 없음



목주반지 전문 금방
다양한 예물, 커플링, 패션제품
서울공예사
범일동 역 12번 출구 중앙 귀금속 115호
(주.야) 631-5006, 631-5007
황인환(가롤로)·김경자(모니카)

분도목공소
제대, 강론대, 장례틀 등
각종 성구 제작
www.bundowood.kr
공 장 : 262-1959
대표번호 : 1544-2391

(주)발해투어
1. 8/27 나가사키성지순례
카멜 4일 47만 9천원
2. 대마도 매일 12만 9천원~
3. 일본/히라도 매일
카멜 3박4일 19만 9천원~
항 프란치스코 010-8511-2442

인산죽염부산지사(동래)
www.insanlove.com
대표 김기룡(야고보)
죽염, 유향오리진액, 호두액, 친환경
557-5553
동래 대동병원 맞은편, 대리점 취급점 모집

포장이사 전문업체
성신익스프레스
(영구크린 부산지점)
이사와 청소를 한번에 해결해드립니다
242-4222, 1522-4324
www.ss0924.com

속편한내과, 영상의학과
간, 소화기병 전문 진료, 종합검진, 보혈공단검진
진단방사선 전문검사(초음파, 컴퓨터 단층촬영)
· 소화기내과 원장
김주호(스테파노), 김진도(안드레아),
허정호(루카), 조성락, 한서름, 이정현
· 진단방사선과 원장 : 임성영, 광숙옥
554-1088/동래지하철역 1번 출구 맞은편

**하지정맥증점클리닉
길맥외과의원**
박우일(요셉), 박동욱(안드레아)
754-9975~6
센텀시티역 11,13번 출구 센텀임페리얼타워 15층

**SINCE 1965
송월타월 부산전대리점**
(부산진시장, 우리은행 옆)
T. (대) 632-5690
양홍식(토마스) 유명애(루시아)

건설현장의 꽃
조은 이동타워 크레인
독일 LIEBHERR. MK80.88.100.110. 등
MK80-마스타30M 짚42M엔드 1.7톤작업
MK100-마스타35M 짚52M엔드 1.6톤작업
MK110-마스타35M 짚52M엔드 1.8톤작업
장비임대. 현장담사(상담환영)
1833-6368, 010-3831-2403
심현진 (프란치스코)

삼진커텐
수입커텐, 완제품커텐,
우드브라이트, 콤브라이트
이영복(요셉)·김미현(마리아)
010-8546-2453
부산진시장 1층 11호문 앞

성령봉사회 (055)382-9465 영성의 집

- 젊은이 기도회
- 7.23(월) 19:30 전포성당
- 7.25(수) 20:00 울산대리구 별관
- 수요 치유기도회
- 7.25(수) 10:00~16:00
- 철야기도회
- 7.27(금) 22:30~28(토) 04:00
- 강사: 조영만 신부(메리놀병원 행정부원장)
- 445차 일반 성령묵상회
- 7.27(금) 19:00~29(일) 17:30
- 회비: 10만원(교재비 5천원 별도)
- 18:30 동래 3번 출구
- 후원회원 월미사
- 7.30(월) 11:00~15:00 (양형성체, 도유와 안수)
- 446차 일반 성령묵상회
- 8.3(금) 19:00~5(일) 17:30
- 회비와 버스는 445차와 동일
-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 말씀 치유피정
- 8.24(금) 17:30~26(일) 15:20
- 강사: 문봉한 신부(대구대교구)

울산가톨릭합창단 단원 모집

Tenor, Bass 각 0명
문의: 010-3919-4973(총무)

교육 · 모집 · 기타

예수성심의 우리 어머니와 함께하는 신심미사

- 7.27(금) 13:30~16:30
- (성모님과 함께하는 성시간, 강의, 미사)
- 남천성당 / 강의: 조인준 신부
- 문의: (02)379-8091(예수성심전교수도회)

향심기도 하루피정

- 7.29(일) 10:30~16:00 · 새 예루살렘
- 강사: 왕영수 신부 / 신청: 7.25(수)까지
- 참여비: 1만원(중식 포함)
- 문의: (052)239-1249, 010-5488-1239

흔들실버타운 신관 입주자 모집

입주: 독립생활 가능한 만 60세 이상
식사 및 건강관리, 문화 및 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 문의: 758-6231, 010-5574-6231

한국순교복자빨마수녀회 후원회 미사

- 7.28(토) 11:00(범일성당 입구 김안과 09:00 출발)
- 양산 무아의 집 / 문의: 010-3355-4997

양주올리베타노수도회 후원미사

- 7.31(화) 14:00 · 성분도 은혜의 집(광안리)
- 문의: 010-9344-3771

하느님의 자비신심 묵상회(17차)

- 8.18(토)~19(일) · 영성의 집
- 문의: 010-3847-2796

성바오로수도회 <말씀으로 마음치유>

- 9월부터 10주간 · 가톨릭센터 1층 성바오로 서원
- 월요일 오전 10:00~12:30, 수요일 저녁 19:00~21:30
- 대상: 30대~60대 남, 여 / 문의: 521-8898

배상섭 신부와 함께 하는 성지순례

- 8.6(월)~9(목) · 나가사키 순례
- 8.16(목)~24(금) · 이스라엘 순례
- 부산 출발 / 문의: 010-3837-6434

예수고난회 하기침묵피정

- 1차: 7.30(월) 16:00~8.2(목) 15:30
- 2차: 8.11(토) 16:00~15(수) 15:30
- 회비: 16만원(1차), 20만원(2차)
- 광주 명상의집 / 문의: (062)571-5004

성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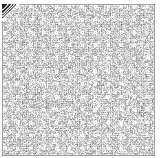
- 비움과 채움의 효소단식피정: 8.2(목)~5(일)
- 신구약성경통독: 8.10(금)~19(일)
- 문의: 010-3340-0201, 010-4993-4394

성베네딕도회왜관수도원 성모승천 전례피정

- 8.13(월) 16:30~15(수) 13:30
- 성베네딕도 왜관 피정의집
- 참가비: 19만원(대구 504-10-102896-6
- (재)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 접수 후 입금
- 문의: (054)971-0722, 010-9877-4739

가톨릭신문사 직원 모집

모집분야: 편집, 취재, 영상기자, 투어팀 사원
마감: 8.19(일) / 상세내용 홈페이지(www.catholictimes.org) 참조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입니다.

한티순교성지 피정

- 7.30(월) 10:00~17:00 · 한티순교성지
- 주제: 예수마음기도(침묵피정)
- 강사: 권민자 수녀(예수마음기도선교회)
- 문의: (054)975-5151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프로그램

- 문의: (031)946-2337~8, www.jesumaum.org
- 예수마음기도 피정: 8.3(금)~5(일) 시작 17:30
- 8.13(월)~17(금), 8.20(월)~28(화) 시작 14:00
- 이나시오 영신수련: 8.20(월)~28(화) 시작 14:00
- 에니어그램 여정 (강사: Sr. 박정자 외 2명)
- 기본1, 2과정 8.9(목)~11(토) 시작 15:00

문산 예수마음피정의집 피정

- 예수마음기도영성수련(권민자 수녀)
- 1박2일 피정: 8.18(토)~19(일), 9.1(토)~2(일)
- 3박4일 피정: 8.2(목)~5(일), 8.27(월)~30(목)
- 8박9일 피정: 8.7(화)~15(수), 9.12(수)~20(목)
- 청년피정: 7.28(토)~31(화) / 대상: 35세 미만
- 문의: 010-4906-5722, (031)953-6932

성경 거룩한 독서 피정

- 9.14~16, 10.19~21, 11.16~18, 12.14~16
- 금 14:00~일 14:00 / 피정비: 15만원(2박 3일)
- 경남 고성 올리베타노 성베네딕도 수도원
- 강의: 유덕현 신부 / 문의: 010-2816-1986

국악성가연구소 국악성가캠프 및 해외성지순례

- [국악성가캠프] 8.31(금)~9.2(일) 안동 농은수련원
- 참가비: 20만원(교통비 4만원 별도)
- [해외성지순례] 9.7(금)~19(수) 동유럽과 발칸
- 반도 순례 / 경비: 440만원(공동경비포함)
- 문의: 010-2279-0255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 입양원

(국내 입양) 입양 상담 및 미혼모 상담
문의: (02)764-4741~3, www.holyfcaec.or.kr

<p>부산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p> <p>“중독상담과 영성”</p> <p>2018학년도 2학기 수강생 모집</p> <p>교육: 9/5(수)~12/19(수) 11:35~13:00 <14주></p> <p>담당교수: 홍성민 신부</p> <p>문의: 510-0951~3, edu.cup.ac.kr</p>	<p>부산성모병원 신경과는 남구 보건소</p> <p>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해 치매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p> <p>치매조기검진(선별검사 및 정밀검사 등 진단 지원, 기본 혈액검사, 심전도, 뇌 CT)</p> <p>문의: 933-7957 (신경과)</p> <p>“부산성모병원은 강동으로 다가갑니다”</p>	<p>가톨릭센터 복음 문화 나눔 행복한 세상</p> <p>찾아가는 문화공연을 위한 합창단원 모집</p> <p>▶ 대상: 문화공연 합창음악을 함께하실 분</p> <p>▶ 오디션: 8.6(월) 20:00 가톨릭센터 302호</p> <p>- 자유곡 1곡과 Polyphony초견 (악보 당일 제시)</p> <p>*정기연습 예정일: 매주 월요일 19:00 가톨릭센터 302호</p> <p>문의: 462-1870 / www.bccenter.or.kr</p>
--	---	---

‘옥에 티’를 찾습니다! 주보에서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카톡 플러스친구 ‘가톨릭부산’, 이메일로 알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p>요양보호사 실업자 국비지원</p> <p>간병사 대모집(초보자 가능) : 병원/개인, 단체, 포괄간병</p> <p>취업연계, 우수훈련강사진</p> <p>818-1004, 245-1004</p> <p>천사요양보호사교육원</p>	<p>임플란트, 심미보철, 교정치료</p> <p>성모치과</p> <p>원장. 송치원(라우렌시오)</p> <p>633-8228, 634-8228</p> <p>지하철 1호선 범일동역 1번 출구 50m</p>	<p>동래로타리</p> <p>독일보청기</p> <p>교우특별할인</p> <p>방(아브라함) 송(아가다)</p> <p>555-5777</p> <p>지하철 수안역 7번 출구 앞(국민은행 옆)</p>	<p>갑상선 · 당뇨 · 고혈압 · 골다공증</p> <p>김용기내과의원</p> <p>[충무동 구. 김동수 내과]</p> <p>원장. 김용기(T. 아퀴나스)</p> <p>전 부산의대 학장 외과전문의 8명</p> <p>상담 및 예약 245-7100</p>	<p>삼성내과 엠엘영상의학과</p> <p>류마티스내과, 대장 내시경, MRI</p> <p>내과 전문의 7명: 박인호(루카), 한경문</p> <p>최병락, 유관희, 남화성, 김윤지</p> <p>서수홍(라파엘)</p> <p>영상의학과 전문의 2명: 박재영, 윤지영</p> <p>산부인과 겸임: 박정미</p> <p>하단역 2번 출구</p> <p>삼성메디칼 9~12층 208-5566</p>
<p>씽크대 보수.리폼</p> <p>주방상판 보수, 리폼 / 씽크대</p> <p>문짝 교체, 수리 / 자연연마광택</p> <p>배소원 (루시아)</p> <p>010-8445-5004</p>	<p>동래 광안</p> <p>참사랑요양병원</p> <p>뇌졸중, 통증 재활 치료, 척추 손상</p> <p>치매, 중풍, 간병 치료, 양·한방 협진</p> <p>동래: 553-0050 추홍수(야고보)</p> <p>광안: 751-1515 김명희(야네스)</p>	<p>미래고속관광</p> <p>45인승/리무진 관광버스 22대</p> <p>여름신양학교, 결혼식 등</p> <p>안전하고 쾌적한 여행</p> <p>대표. 우중한(리차드)</p> <p>055-333-6300, 010-3720-0303</p>	<p>하나투어 공식예약인증센터</p> <p>여행매니저닷컴</p> <p>국내, 해외여행, 항공권, 비자발급대행</p> <p>741-1100</p> <p>해운대구 중동1로 37번길 12 3층</p>	<p>SM수맥휴심대</p> <p>거실 황토스파</p> <p>평화방송, 신문광고 중</p> <p>주보 지참 교우 우대</p> <p>1588-5335</p>